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비신앙적 현상에 대한 신학과 윤리적 과제

황 봉 환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윤리학

1 들어가는 말

1.1 문제의 제기

지금의 한국교회는 신학적 혼동과 세속적 문화에 깊이 물들고 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성향의 신학이 창궐하고 세속적 문화와 다문화의 영향이 기독교 문화를 잠식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신학의 교리와 교회 정치의 구조적 패턴을 허물어뜨리는 해체를 주장한다. 진보주의 신학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인간이 절대자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방법론을 끌어들여 인간중심의 신

* 논문접수일: 2010. 7. 30

논문수정일: 2010. 8. 24

게재확정일: 2010. 9. 8

학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기독교문화 역시 문화 활동이라는 이름하에 사회 전반이 광대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문화 창출이고 한국 문화의 고유 전승인가? 아니면 문화라는 이름하에 놓고먹자는 생존 방편인가?

로버트 보크(Robert Bork)는 미국 사회의 문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어디를 봐도 문화의 전통적 덕목은 사라지고 있으며, 악덕이 창궐하고 있으며, 가치관이 타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 자체가 끝장을 보고 있다.”¹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 타락상을 대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유로운 성교제, 가정의 해체, 독신남녀의 증가,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도덕질 증가, 청소년의 타락 증가, 포르노와 모텔산업 증가, 24시간 성인방송 등이다. 무엇보다도 자유방임적 문화가 기독교 도덕성을 위협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주의적 윤리규범이 절대주의적 기독교 윤리규범을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비기독교적 그리고 자유방임적 문화로 인하여 교회의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기독교 영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간파하고 신학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윤리규범과 개혁주의 신학 교리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재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논문의 목적과 방향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화에 몰든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비신앙적(非信仰的)²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윤리적 규범을 재강

1 James Montgomery Boice and Benjamin E. Sasse(ed.), *Here We Stand*, 김기찬 역, 『복음주의의 회복과 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25-26.

2 필자가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신앙적”이란 ‘불신앙’이란 표현과는 다르다. ‘불신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비신앙적”이란 신앙을 가지고

조하려는 것이다. 논고의 방향은 먼저 어떤 영향들을 통해 한국교회 안에 비신앙적 세속화의 요인들이 발생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를 잠식하는 비신앙적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밝혀 볼 것이다. 셋째, 개혁주의 신학과 윤리적 규범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해야 할 과제요 시대적 사명이다.

2 탈현대적 세속화의 영향

2.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물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70년대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은 ‘탈현대성’을 뜻한다. 현대성으로부터 ‘탈피 하다’, ‘단절 하다’ 그리고 ‘벗어나다’는 말이다. 권위주의적 현상에서 탈피한다. 구조주의적 조직성을 탈피한다. 금기시하는 성(性)적인 굴레에서 탈피한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한다. 신학의 보수적인 틀에서 탈피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탈피와 단절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변형된 자유방임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탈현대성의 특징이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정치, 종교, 학문, 예술 전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철학, 음악, 문화, 종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첫째, 컴퓨터 공학과 과학기술 분야가 발전했던 시점이다. 컴퓨터와 과학기술은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재현하기도 하며, 실현될 수 없는 공상적인 사건들도 만들어내게 되었다. 둘째, IT

산다고 하면서도 삶 전반에 나타나는 교리와 윤리적 규범 그리고 말과 행동의 표현에 대한 실천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기술의 향상이다. IT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정보수집이 방안에서 이루어지고, 통신, 뉴스, 오락, 스포츠 게임 등이 이동 중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³ 셋째, 대중문화의 측면에서는 특히 음악과 성(性)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중음악에서 탈현대성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다. 현대 대중음악은 전통적인 제작법이나 표현방식을 완전히 탈피해 현실적이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접목시키려 한다. TV는 소비자 지향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며, 대중 연예인들을 내세워 신세대 구미에 맞는 만족감을 판매한다.

넷째, 성(性) 문화의 획기적 변화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성은 국가나 교회나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인 활용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혼전 성관계, 혼외 관계, 동성애, 매춘 등을 정당화하고 객관화 하려고 했다.⁴ 이러한 성의 미화, 성에 대한 담론의 자유화, 성의 상품화에 대한 푸코의 영향력은 성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적 가르침을 온통 흔들어 놓았다(엡 5:3-4). 이러한 성의 자유에 대한 사고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예절과 무례의 구분이 붕괴되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탈현대주의의 영향은 종교다원주의를 탄생시켰다.

2.2 세속화의 영향

3 David F. Wells, *God in the Westland*, 윤석인 역, 『기록하신 하나님』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77.

4 성인경,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257. 미셸 푸코(1926-1984)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을 연구하여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가르쳤다. 성의 경계와 금기를 허물어뜨린 그의 저술 “성의 역사”(Histoire de la Sexualite)에서 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성담론을 통해 섹스가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e*, 이규현 역, 『성의 역사 I』 (서울: 나남출판, 2004).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탈현대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세속화⁵ 시켰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비성경적 기독교에 대하여 찾아낸 슬로건이 ‘오직’(sola)이었다. 특별히 개혁자들은 다섯 가지 신학 주제에 대하여 ‘오직’(sola)을 강조했다.⁶ 종교개혁 이후 1970년대까지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은 성경과 성경적 신앙고백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와서 개혁주의 신학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개신교 안에서 개혁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신학의 두 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인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보다 부의 불균형, 분배의 불균형, 환경오염, 비민주적 정치형태, 문화의 다양성, 핵무기 확산금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반면 보수주의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성, 가족의 가치, 생명윤리(낙태 및 안락사), 해외선교, 평신도 교육 등에 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수주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자유주의 사람들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기 시작했으며,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러한 주장들이 더 교회답고 신학다운 모습으로 비쳐졌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지적들처럼 보수주의 사람들은 교회의 사회적 관심에 대해 더 깊이 성

5 필자가 이 논고에서 말하는 ‘세속화’는 종교개혁으로 출발한 개신교회들이 오늘에 이르러 교회의 대중적 참여를 감소시키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신학과 신앙까지도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뜻한다. 로버트 웨버(R. E. Webber)의 말에 근거하면 현대인들이 기독교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가르침과 심리학자들[칼 융(Carl Jung), 프로이트(S. Freud), 에릭 프롬(Erich Fromm), 칼 로저스(Carl Rogers), 롤 메이(Rollo May)]의 자아 중심적 인간상의 가르침, 뉴에이지 운동, 동양의 사상, 물질주의 사상에 빠져가는 상황을 21세기의 세속화로 규정하고 있다. Robert E. Webber, *The Divine Embrace: Recovering the Passionate Spiritual Life*, 차명호 역, 『하나님의 포용』(서울: 미션월드, 2007), 126-127.

6 다섯 가지 신학 주제에 대한 ‘오직’(sola)은 다음과 같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그리스도만(solus Christus)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한갓 종교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개혁주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에서 신학을 발견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서 교회의 힘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하나의 종교단체로 변질되고 있다.

정성구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곧 신학의 타락과 변질에서 왔으며, 신학의 세속화와 합리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과학적인 잣대로 성경의 진리를 모두 부셔버리고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른바 신학이 종교학으로 변질되어 혼합주의적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한 자유주의 사상을(이) 교회의 강단에서 전파되니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 교회를 떠나 버렸다.⁷

데이비드 웰스는 오늘날 미국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변함없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떠났다고 했다.⁸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의 영향을 받은 오늘의 개혁주의 교회는 악을 질병처럼 다루는 치유중심의 문화 집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개인출세를 지향하는 경영자가 종교생활을 조직화하고 통제하게 되었다. 오락과 예배가 혼합되어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강단의 설교가 설교(preaching)가 아니라 성경의 꺾데기를 뒤집어쓴 연설(address)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교회들이 다시 찾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7 정성구,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서울: 하늘기획, 2009), 13.

8 Wells, *God in the Westland*, 46.

3. 한국 개혁신주의 교회의 비신앙적 현상들

3.1 하나님(God)을 잡신(gods)처럼 생각함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계시한 객관적 진리이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다수의 신자들은 성경을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상대적, 합리적 그리고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절대성을 배격한다. 현대사상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경험담, 종교적 체험 그리고 세상의 윤리적 교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이 현대 사상에 의해 사유화 된 상대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째, 비기독교인들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보며,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gods) 혹은 영들(spirits)이 자연의 영역을 서로 나누어 지배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둘째, 비기독교인들은 주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는 성경이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판단을 진리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결정한다. 이것을 주관적 진리로 삼는다. 셋째, 비기독교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똑같은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살아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고행이나 공로로 신(gods)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비기독교인들의 신관(神觀)은 자연신관이다. 그들의 신관은 자연을 통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자연을 떠나서는 신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

라서 자연을 통한 개인의 체험에서 신의 존재와 신의 능력을 맞보려고 한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노엽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때로는 보호를 대가로 금전을 바치기도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신관은 절대 신관이고 유일신관이다. 하나님(God)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출 20:3). 단지 존재한다고 믿는 신들(gods)은 인간이 형상화하고 자기 주관적 신들로 고안하거나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탈현대적 혼합주의 종교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의 하나님과 세상 신(gods)을 구별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하며, 오직 인간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신앙하도록 해야 한다.

3.2 죄의 신학적 개념을 버림

탈현대주의 사회에서는 성경적 관점의 죄의 개념이 사라져 가고 있다. 현대세계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찾을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세상은 생명 파괴, 생명 강탈과 유린, 생명학대와 무자비, 음행과 간음, 사기와 강도를 유감 정도로 생각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다.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법적인 사소한 위반행위, 교회규정을 어김이나 불의한 생활 정도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을 악한 행동이라고 말할 뿐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탈현대주의 사상이 죄와 악에 대한 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해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죄의 개념이 사라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죄가 무엇인가 하는 죄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세계에서 죄의 개념은 악한 행동 정도 그리고 윤리적 범죄행위 정도로 축소되었다. 죄는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되었다. 교만의 핵심은 피조물인 인

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버리는 것이다. 바울은 죄의 값어치가 커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급하면서 “교만한 자”(롬 1:30)라고 했으며,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교만하며”(딤후 3:3)라고 했다.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을 교만이라 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기준, 판단, 요구, 명령에서 벗어나 행위를 말한다. 죄는 표적을 빗맞히는 것이요(롬 3:9; 7:5), 표준도량에 미달되는 것이요,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롬 2:23; 5:20; 갈 3:19).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⁹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뿌리내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분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자신의 가치와 만족과 목표를 추구한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자기 존재의 창조자요, 자기 가치의 재판관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바울은 중생치 못한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롬 8:7). 이러한 인생의 죄에 대한 결과는 상상하지 못할 결과에 이른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둘째, 죄의 본질이 인간의 타락과 교만에 의해 변형되었거나 위장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신(god)이 되었다. 오히려 스스로의 신(god)이 우주만물의 신(God)을 대신한다. 스스로 작은 신(god)이 된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력, 스스로의 위신, 스스로의 요구를 신(God)의 결정 혹은 성경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교만이 지닌 어리석음이다.

9 David F. Wells, *Losing Our Virtue*, 윤석인 역, 『윤리실증』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294.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석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가 유죄로 판명되나 세상에서의 죄는 단지 양심의 가책이나 수취로만 느낄 뿐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인생은 고통과 혼란과 무질서에 빠진다. 환경은 사면으로 공격을 당하고, 결혼은 고통스런 억압이 되어 이혼이 증가하고, 일터는 경쟁과 거짓으로 가득 차고, 나라들은 서로 싸우고, 인간은 풍요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지라도 마음의 공허함에 시달리며,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 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 3:23)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다.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할 자가 없다고 했다(눅 5:21).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다(롬 6:23). 그렇다면 어찌할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에 돈으로 치면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길은 그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행 4:12).

3.3 기독교 윤리규범이 상실됨

이 시대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수취심정도로 생각하며, 윤리적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규범이 와해되었다. 물론 세상에서도 윤리적 규범들은 삶 전반에 걸쳐 정해져 있다.¹⁰ 세상의 윤리적 규범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의 편리와 유익을 위하고 정신적, 물리

10 삶 전반에 연관되어 있는 윤리규범들은 다음과 같다. 종교윤리, 사회윤리, 의료윤리, 경제윤리, 문화윤리, 환경윤리, 상업윤리, 기업윤리, 가정윤리, 공동체윤리, 정치윤리, 생명윤리 등이다.

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정되고 실천하려는 상대적 윤리규범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규범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세워진다. 모든 율법의 원리인 도덕법(십계명)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비에 새겨져 인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출 24:12; 34:28; 신 10:3-4). 따라서 그것은 절대적이다. 성경은 기독교 윤리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그 지식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거짓과 진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과 정의, 책임성과 무책임, 동정과 무관심, 정직과 부정직, 사랑과 미움 등이다. 이러한 성경의 규범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반면 세상에는 윤리적 규범이 있어도 본성이 타락한 인간에 의해 해석이 뒤틀리고 잘못 적용되고 있다. 기혼자들의 이성 간에 교제에 대하여 타인의 이성 관계는 불륜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성 관계는 로맨스로 해석한다. 근면이 좋은 윤리적 미덕이었다면 현대는 그저 성숙함의 표현으로 본다. 나쁘다고 인식된 성희롱이 현대는 성적 부적응의 증상으로 해석된다. 윤리적 측면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이 그저 부적당한 일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약물남용으로 해석한다. 쌍스러운 언어 표현을 유머(humor)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윤리적인 규범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악인들은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통해 바른 행동의 본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3.4 교회를 마케팅 기법으로 운영함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교육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성경이 사용한 ‘교회’(ekkllesia)란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들의 회집체’란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¹¹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사역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훈련시켜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실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용하는 효율성의 경영 방식을 왜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소원들을 채워주기 위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경영자, 상담자(consultant) 그리고 전문 치료자(심리, 약물, 종교)에게 맡기고 있다. 영혼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유시켜야 할 목회자가 왜 세상일의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세상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하는가? 왜 교회를 교회답게 목회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장터처럼 만들고 있는가? 한 가지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자를 향한 압박이며, 다른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받는 마케팅 전략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구는 교회의 가시적인 성장이며,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력은 교회 목회에 마케팅 전략의 도입이다.

11 바울은 ‘교회’(ekkllesia)란 말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2, 9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3)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로 설명하고 있다.

3.4.1 방법론에 치중한 교회 성장론에 대한 적용의 문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 목회에 가장 큰 비중은 교회성장에 있다. 교회의 성장 여부에 따라 목회자에 대한 신뢰, 존경, 대우의 자세가 달라진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성장에 목을 걸고 있다. 그래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제시하는 방법론을 신학적 비평도 없이 받아드리고 그것을 지교회(local church)에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평가 받지 못한 방법론을 도입 적용함으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목회의 목표로 삼은 것은 가시적인 성장이 없을 때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는 중압감이 작용했다고 본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¹² 성장이 없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성도를 얻고, 성숙한 성도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 성장에는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성장에 대한 목회자의 세속적 방법론이 문제이다. 세속적 방법론이 교회를 시장터로 만들고, 교인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지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스스로 구속을 성취시키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

12 성장이론이 교회에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이다.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이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1930년대 교회 성장 이론의 주요 원칙들을 내어 놓았다. 그의 이론이 성교학계 외부로 알려지고 제도권 교회에 소개된 것은 1970년대였다. 그의 저서 『교회 성장의 이해』(1970)와 미국교회성장학회(The Institute for American Church Growth)의 설립, 그리고 글래스(Arthur Glasser), 와그너(Peter Wagner), 티페트(Gen Tippett), 크래프트(Charles Kraft), 히버트(Paul Hiebett) 등의 학자들이 소속된 풀러세계선교학회(Fuller's School of World Mission)가 이 새로운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참조, Wells, *God in the Wasteland*, 107.

결하고,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천국을 만든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며, 은혜가 왜 필요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가? 진리가 없는 교회에 교인은 반드시 떠난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장론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4.2 교회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도입

교회 성장운동은 무엇을 강조했는가? 기네스(Os Guinness)에 따르면, 교회 성장운동은 “교회중심, 선교 우선주의, 성장 가능성, 외부 사람들의 흥미를 끌 필요성, 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객관적인 성과의 강조, 주요 인문 과학 분야가 제시하는 최선의 통찰력과 기술을 사용하는 지혜” 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¹³ 이러한 것들 외에도 교회 성장을 위해 심리학, 마케팅 기법, 행동과학의 연구, 전도전략과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 있다. 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조직구성, 그룹리더 양육 프로그램의 세분화, 재능과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의 발굴 등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받아드린 성장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웰스는 맥가브란의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맥가브란은 신학을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 이론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매우 실용주의적이고 결과 중심적이었다. 이 이론은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속성들을 무시한 채 성장운동의 테크닉만 받아들이게 했다. 이 이론을 받아드리면 신학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맥가브란은 교회가 같은 종족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13 Os Guinness, “Sounding Out the Idols of Church Growth,” in *No God but God*, ed. Os Guinness and John Seel (Chicago: Moody Press, 1992), 153. Wells, *God in the Wasteland*, 107.

교회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주장이다. 교회가 정말 똑 같은 계층, 취향, 소득을 가진 자들만 위하는 단체일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인종, 교육, 계층, 직업, 사회 신분 등)이 허물어졌음을 말한다. 셋째, 맥가브란은 교회의 기존 성도들의 질적 성장은 염두에 두지 않고 회심자들의 수(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분리될 수 없다.¹⁴

이러한 교회 성장론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는 신앙과 신학을 변두리로 몰아내게 하고 인간의 기교가 그 중심을 차지하도록 했다. 목회자와 신학자가 해야 할 역할을 경영자, 감독관, 관리자, 마케팅 전문가, 상담가들이 대신했다.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를 훌륭하게 마케팅 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조지 바나(George Barna)이다.

3.4.3 조지 바나의 이론은 무엇인가?

조지 바나는 세상이 급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관습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교회 역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교회는 변하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고객의 필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마케팅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을 교회 성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교회 성장에 기업 경영 테크닉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바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현대인들이 마케팅 영역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 교회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평가하며,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드리는 데 교회는

14 Wells, *God in the Wasteland*, 107-111.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라고 반문한다. 이제 교회가 새로운 방식을 받아 드려야 하는 데 그것이 오늘날 기업 경영원리를 모방하는 것이다.¹⁵ 결국 목회자가 유능한 경영자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교회와 기업의 유사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회와 기업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가?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교환해 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절망 중에 있는 영혼에게 안식처가 되게 한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자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교회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권과 복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제품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팔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기업은 소비자의 삶을 더 안락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통해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기업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만족함과 행복을 외친다. 그러나 교회는 인생의 종말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한다.

둘째, 교회 성장에 치유 단체의 테크닉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현실주의 치유단체들이 등장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술, 약물, 섹스, 도박, 폭력, 쇼핑, 부의 욕망)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로 본다. 목회자들 역시 치유를 받아야 할 자들로 본다. 현대 목회자들 무능함에서 해방되도록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⁶ 무능함에 대한 치유책은 전통교회들을 친

15 이 논고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이론적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없다.

16 목회자들의 무능함이란 구습을 넘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무능함, 주변 사람들과 사귄 수 없는 무능함, 일상생활, 계획, 목표설정, 서비스, 음악활동 등을 최선의 것으로 새롭게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말한다.

화적인 교회로 변모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¹⁷ 그러나 바나의 이론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참여자 친화적인 교회는 실용주의적인 낙관주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주장은 치유과정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확신을 통해 모든 문제에 초연하게 대처하라고 가르친다. 교회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어떤 교회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것이다. 친화적인 교회들은 교회가 미래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보이고 비전의 목적이 '미래창조' 임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유중심의 관점에서 죄의 개념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바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강조처럼 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마치 세균에 감염되듯 환경으로부터 감염된다고 주장한다.¹⁸ 그는 간단한 치유책만 현명하게 사용해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회개보다 테크닉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나의 이론은 정당한가? 바나의 주장은 성경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때만 교회는 성장한다는 성경의 증언과 정반대이다. 그의 마케팅 이론이 교회의 본질적 가치와 사명을 흐리게 만든다. 그는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로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생각한다. 교회를 회개와 복종을 요구하는 기관이 아닌 소

17 불신자들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예배형식이나 성례전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형식을 제거하는 열린 예배(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주도한다. 외부인들이 낯설게 느끼는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의 상징물들을 철거한다.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을 없애고 연설단처럼 만든다. 심지어 교회를 쇼핑몰처럼 리모델링한다. 교회를 세상의 음악 놀이패들이 연주하는 공연장처럼 꾸민다.

18 Wells, *God in the Wasteland*, 125.

비를 위한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는 조직체로 생각한다. 바나의 이론은 현대 실용주의의 성공 비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소비자의 흥미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판매될 수 없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요구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준행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으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얻고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다. 교회는 가시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교회가 현대의 기술, 문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 실용주의적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불변의 진리를 교회 안에서 밀어내고 있다. 새롭고 실험적인 열린교회 만들기에 동참시켜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목회자를 회사 경영자로, 복음 안에서 기독교의 참된 교제를 오락과 사교 모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네스의 말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은 현대성이 주는 도구를 사용해 말 그대로 세상을 얻을 능력은 있으나, 정작 자신의 영혼은 잃어버린다.”¹⁹ 테크닉이 진리를 대신하고, 마케팅 활동이 사상을 대신하고, 개인의 만족이 교회의 번영을 대신하고, 치유중심의 세계관이 교리적인 통찰력을 대신하고 그리고 유기체가 조직체로 대체 되고, 말씀 선포자가 조직 경영자로, 대체되고, 영적인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대체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진리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가 무엇인가?

19 Os Guinness, *Dining with the Devil: The Magachurch Movement Flirts with Modernity* (Grand Rapids, Mich. : Baker Book House, 1993), 43.

4 개혁주의 신학의 과제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할까 하는 것이다.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계시에만 근거한다. 따라서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다. 바울은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에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 이 성경의 기록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학과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4.1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 강조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성경의 이중적 진리를 균형 있게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재자로서 피조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계시하고 있기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묘사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이중적 진리를 인정하는 균형의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했다.²⁰ 그러나 이 두 사이의 균형이 상실되면 심각한 신학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간 이성의 역할과 문화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잃게 되고, 반면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

20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중심으로 현대 신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하고 비평한 책으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서울: IVP, 1997).

조하면 인간 이성의 판단과 어떤 특정의 문화에만 얽매이는 신학이 되고 만다.

20세기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이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드러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렌츠는 이렇게 말했다. “금세기의 신학은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전(前) 세기의 낙관론적이고 이 세상 중심적인 사상의 연장(延長)으로서 시작되었다.”²¹ 이렇게 내재적으로 불안한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진 신학은 보수 작업을 통해서만 고쳐질 수 없으므로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²² 칼 헨리(Carl F. H. Henry)는 현대 사상이 하나님의 초월적 차원을 상실한 것을 개탄하면서 이 초월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중대하다고 주장했다.²³

4.1.1 하나님의 내재성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독교에 안겨준 세계성은 하나님과 믿음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고 공적인 광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전도하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다양한 믿음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적인 영역을 강조한다면 하나님과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무능해 진다. 만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여 신앙생활 한다면 이원론적 신앙이 되고 만다. 사적인 영역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실천이 가능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일관된 신앙의 실천이 불가능해 진다. 이것이 하나

21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3.

22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5.

23 Carl F. H. Henry, *The God Who Show Himself* (Waco, Tex: World, 1966), 4.

님의 초월성(타자성)과 내재성(관계성)을 나누는 선이 된다. 내재성은 하나님은 인류 안에만 계시고, 더 온화하고, 더 부드럽고, 더 가까이 계시고, 더 매력적이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개인적인 신(神)으로 이해한다.²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대한 진리를 제공할 때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풍성히 제공한다. 하나님은 달과 별들을 굳게 세우신 분이시다(시 8:3; 33:8-9). 어디서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시 33:14-15).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행 17:27)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한다”(행 17:28)고 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창조세계(사 40:15-20)와 그것을 보존하는 손길을(사 40:22-26)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책임을 묻는 분이시다.

그러나 신학이 하나님의 내재성에만 치중한다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계된 것들은 다 잃는다. 내재성이 강조하는 신(神)은 자아를 통해 접근하는 신이고, 치유의 혜택을 듬뿍 주는 신이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 신이며, 친근하고 안전하고 타협적인 신이 된다. 탈현대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재성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영성으로 변모시킨다. 기독교 영성과 문화적 영성과 차이가 없도록 만든다. 문제는 인간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영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성을 가지는데 굳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성경도,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대속적 죽음도, 부활도, 복음에 대한 신앙도, 중생도, 성령의 감화와 인도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접근했으나 그것을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수용

24 Wells, *God in the Wasteland*, 194.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고 오용되기에 이르렀고,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진리를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1.2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그분의 존재, 능력, 성품, 그리고 뜻이 인간의 존재, 지식, 사고, 한계, 활동 등의 상대성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첫째, 초월성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창 1:1; 시 24:1-2; 시 146:6),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시 145:13; 146:10),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고 크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시 145:3),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며(사 6:1),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행 7:48)이다.

둘째, 하나님은 구별되어 계시는(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도 초월적인 분이시다.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절대 성결한 분이시다(사 6:5).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인에게 사랑을 쏟아 부은 분이시나 임재의 축복을 잠시 멈추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교만한 자를 흠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는 분이시다(눅 1:51-52).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매수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분의 초월성을 묘사한다. 초월성의 하나님이 교회와 타락한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을 상세히 우리에게 다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하심이니라”(신 29:29).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첫째, 불변의 도덕적 율법이 있음을 가르친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적 규범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을 모두 잃을 것이고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악을 자행할 것이다. 율법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며, 죄의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방향을 돌리게 해 준다. 이것이 초월성의 하나님을 통해 맛보는 열매다.

둘째,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을 상실했기에 죄의 무법성과 그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된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재난과 멸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따라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이기는 것이다.

셋째, 십자가가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 바로 십자가를 위해 초월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성육신과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도 없다.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기독교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용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된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속하여 그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초월성의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이다.

넷째, 심판이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없으면 세상의 죄와 악을 다룰 능력자가 없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언젠가 끝이 나고, 인생을 악에 빠지게 하고 오염시킨 것들은 결정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교리는 부정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희망이다. 이 세상은 종종 악이 승리하고, 처벌 받지 않은 채 넘어가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종종 쫓겨나는 세상이다. 그러나 마지막엔 악이 심판을 받고, 세상이 깨

곳이 청소되고, 교회는 마침내 구속될 것이다. 불의와 타락으로 왜곡된 세상은 바로 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의 능력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세세에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계 22:5). 그렇게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의 의무가 있음을 가르친다. 교회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룩성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더 진지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도자를 위한 명목으로 교회가 마케팅하는 ‘할인된 기독교’를 전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수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룩성이 왜 중요한지를 물으면 대답할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성을 외면했을까? 그 이유는 내재성의 하나님에 입각하여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사적인 필요에 끼워 넣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삶의 안전과 축복만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목적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목적도 잃어 버렸다. 그래서 갈 길을 모른 채 허둥대고 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진리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내재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도 알아야 한다. 이 신학적 균형을 상실하지 않을 때 한국 교회는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

4.2 성경적 교회관의 재정립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회가 종교의 영적 본질에 대한 분명한 통찰

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교회가 무엇인가? 신약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벧전 2:9-10), ‘하나님의 권속’ (엡 2:19), ‘그리스도의 몸’ (고전 12:27), ‘그리스도의 신부’ (계 21: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로 부른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 내신 백성들의 회집체’ 라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집체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사역의 중심이 되는 몇 가지 역할만 다루기로 한다.

첫째, 성경적 복음전도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전도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기초로서가 아니라 구도자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전파된 복음은 제자도와 상관없으며, 무교회 상태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가시적인 교회를 불신하고, 봉사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징계를 받을 만한 책임질 일이 없고, 성찬식도 참여하지 않고, 목회적 보살핌도 받을 수 없고, 신앙 성숙을 위한 교육도 없고, 단지 현금만 송금하면 되는 종교인으로 만든다. 교회마다 커피숍(cafe)을 만들고 좀 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며,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어쩌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공간과 차별성이 없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은 사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작술, 우리의 체계, 우리의 조직, 화려한 강단, 그리고 우리의 마케팅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면 오직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적 복음을 외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개혁주의 예배관의 회복이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에 ‘교회다운’ 모습이 사라졌다. 찬송도 없고, 설교도 없고, 설교단도 없고, 성직자와 교인의 구분도 없고, 불신자로 하여금 자기가 공연장에 와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예배를 재미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교역자를 고용한다. 이것이 복음전도를 명목으로 열린 예배를 받아드리고 있는 교회들의 현상이다.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성경 기록의 목적과 의도를 분별하고 연구하여 연설(addressing)하지 말고 설교(preaching)해야 한다. 교회 안에 악기 사용을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단지 드럼을 두드리고 트럼펫(trumpet)을 불면서 교회를 온통 시장바닥이나 공연장처럼 만드는 일을 삼가야 한다. 예배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좌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공하게 만들 방법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

셋째, 성경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기 위한 교리교육 강화이다. 교회가 이단들이나 비성경적 교리들을 분별하여 많은 복음주의 교단들이 받아드리고 있는 신앙고백의 신학적 교리들과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스스로 복음주의 신학의 진영에 남아있고 싶고, 복음주의 신앙의 중요성을 말하고,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의 틀 위에서 교회를 설립하지만 진작 교회를 세우고 나면 복음주의 신앙과 교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교리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우리와 후손들의 신앙교육에 필요하고 교리적 확신을 갖게 하도록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작성한 문서이다.²⁵

넷째, 권징의 실천이다.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은 전파되고, 성례는 집행되고 있지만 권징은 사라졌다. 물론 교회의 권징실천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²⁶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를 멀리해야 하고(마 18:15-19), 분열을 조장하는 자를 피해야 하고(롬 16:17; 딤후 3:10), 음행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제거하거나 출교시켜야 하며(고전 5:1-5, 11), 게으른 자를 훈계해야 마땅하며(살전 5:14),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하고(고전 5:9-11; 계 2:2),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을 꾸짖어야 한다(딤후 5:20; 딤후 1:13)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가르침에 따르면 권징의 형태도 개인적인 책망, 바로잡기 위한 훈계 그리고 출교를 모두 포함한다. 징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는 데 있다. 교회가 징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멀리하면 예배는 경건함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력을 상실하고, 교회는 도덕적 권위를 잃고, 신자는 거룩함을 잃게 된다. 따라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25 예를 들면, 많은 장로교단들이 받아 드리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정치규범”의 작성은 많은 세월과 토론과 회의를 거쳐 작성된 문서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시작된 종교회의는 1643(7월)부터 1649(2월)까지 5년 7개월에 걸쳐 1163회나 회집되었고 그 결과로 작성된 신앙과 신학 그리고 교회정치 문서들이다.

26 권징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어떤 의인이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권징을 실천할 때 이 사람의 권징은 받아드리고, 저 사람의 권징은 받아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무자비한 자들이 권징을 미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가 나쁜 자를 내어 보낼 수도 있지 않은가? 권징을 받는 사람이 그 교회에 등을 돌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물론 권징을 실천하면 교회가 성결하고, 순전해지고, 불평자가 사라지고 평안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자의 언행심사에 순결함을 조성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닌다. 신자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4.3 기독교 윤리규범의 재강조와 적용

기독교 안에서 윤리적 규범이 와해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와해되고 성경의 진리가 개인주의의 도덕적 규범에 가려졌기 때문이다.²⁷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을 성경으로부터 세워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규범인 십계명의 재강조이다. 십계명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주신 계명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규범으로써 불변적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으로서 역할을 하며, 구속받은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이다. 신약시대에는 복음 안에서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다. 이것이 십계명의 올바른 이해방법이다. 오늘날 십계명의 연관성을 주목해 보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3-17에서 처음으로 주어졌으며, 또한 신명기 5:7-21에도 주어졌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출 31:18) 두 돌판에 각각 새겨져 있었고,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신 10:1-5).

십계명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연관성은 계속 언급되어 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고(렘 7:9-10; 호 4:2), 쉘마 본문(신 6:4-9; 11:31-21; 민 15:37-41) 함께 매일 성전에서 읽혀졌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느 계명을 말하는가에 대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마 19:18-

27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개인주의 도덕적 규범이란 개인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대성은 개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도덕적 기준을 규범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범은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인정되거나 승인된 윤리적 규범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성경에 기초를 둔 기독교 윤리의 규범이 될 수 없다.

19).²⁸ 바울은 로마서 13:9과 디모데전서 1:9-10에서도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야고보 역시 2:11에서 6계명과 7계명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논증들을 통해 십계명은 불변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율법의 예시적 교훈인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셨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라도, 만약 그가 형제를 ‘미련한 놈’ 혹은 ‘바보’ 라고 말하면 6계명을 범했다고 하셨다(마 5:21-22). 또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7계명을 어긴 자라고 하셨다(마 5:27-28). 비록 한 가지 계명만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을 반포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²⁹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교훈은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예시적 교훈의 성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지적하심으로 율법과 그의 교훈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기원이요 원천이다(롬 5:8; 8:32-39; 갈 2:20).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

28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십계명의 순서를 다르게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다.

29 요한 칼빈은 율법에 대한 해석에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율법 전체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려는 예시적인 교훈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4). vol. 2.7.5; 참조, 2.8.1.

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마 22:37-40). 칼빈은 율법이 교훈하는 목적은 성결한 생활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성결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다.³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인간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반영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취된 율법의 예시적 교훈이다.

셋째, 사랑의 기초위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여해야 할 정의(justice)의 추구이다. 하나님 사랑의 반영은 그리스도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정의를 추구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여해야 할 사명을 부여한다. 그리스도인이 정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정의(justice)의 원천인 의(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본성이다.³¹ 그 본질적 의에서 흘러나온 정의는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 서서 악에 대항하며, 사회적 불의, 불공평, 폭력, 인권유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하여 정의를 외쳐야 한다.³²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공흠을 동반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4 윤리성의 회복을 위한 과제

30 Calvin, *Institutes*, 2.8.51.

31 스탠리 그렌츠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righteousness)의 실천을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정의에 편벽됨이 없으며, 공흠을 동반한다고 했다. Stanley J. Grenz,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흐름과 토대』 (서울: IVP, 2001), 275.

32 사회적 불의, 불공평, 폭력, 인권유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정의의 구체적 실천 방향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럼에도 원리적인 제안일 뿐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이 논고에서 다루지 못했다.

첫째, 하나님은 본성에 있어서 거룩하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자임을 성경을 통해 밝히셨다(레 11:44; 19:2; 20:7; 벰전 1:16; 수 24:19).³³ 거룩함은 그분의 본질적인 존재와 성품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의 백성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두려움 없는 언행이 난무하고, 예배가 인간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의 말과 행동과 삶이 진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악에 대항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백성의 영적생활의 중심을 변화시킨다. 그분의 진리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갬다(히 4:12).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진리와 일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분의 도덕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지적한다. 포사이스(Forsyth)는 “사랑은 거룩함의 나아감이요, 죄는 거룩함에 대한 반항이요, 은혜는 죄에 대한 거룩함의 행동이요, 십자가는 거룩함의 승리요, 믿음은 거룩함에 대한 경

33 데이비슨(A. B. Davidson)은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고 했다. A. B. Davidson,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11), 151. 벌코프(Louis Berkhof)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단언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그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London: Banner of Truth, 1959), 73. 윌리엄스(J. Rodman Williams)는 “거룩함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 사실”이라고 말한다. J.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God, the World and Redemption* (Grand Rapids, Mich: Academic Books, 1988) 59. 호크마(Anthony Hoekema)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리된 속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전 존재와 사역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Anthony Hoekema, “The Attributes of God: The Communicable Attributes,” in *Basic Christian Doctrines*,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1), 31.

배일 뿐”이라고 말한다.³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무한하신 은혜로 오래 참으실 수 있으나 언젠가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셋째, 진리의 절대적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 자아가 자신의 본성과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고 가르친다. 현대성은 과학 기술력의 영향으로 과거의 지혜, 지식, 신념, 가치, 문화의 전통들은 구시대 유산으로 추정하며, 최첨단 제품들이 우월하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성경에서 출발한 기독교 유신론이 관념론으로 대체되었다. 오늘날은 관념론 역시 붕괴되고 인본주의로 대체되었다. 인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위는 개인이 가진 권위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포기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인간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고안하고, 각색하고, 경험하고, 짜 맞춘 지식이 아니다.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진리의 절대성과 무오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증명한다.³⁵

34 Peter Taylor Forsyth, *The Cruciality of the Cross* (London: Independent Press, 1948), 22-23.

35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오성을 확신한다.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하는 표현으로 ‘절대적 무오성’ (Absolute Infallibility)와 ‘목적의 무오성’ (Inerrancy of Purpose)이 있다. ‘절대적 무오성’이란 성경의 원 저자인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인간 저자들에게 의해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은 전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인간에 의해 기록된 내용이라도 그것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것이기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목적의 무오성’이란 성경 기록의 보존을 위해 성문화(사본) 하는 과정에서와 각 나라 방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실수와 무지로 성경 본래의 뜻과 의도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려는 목적과 의도, 즉 인류의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손상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소한 오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할 때 우리는 ‘목적의 무오성’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 절대적 진리가 인생에게 삶의 상대성에 좌우되지 않는 참 지식을 준다.

5 나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는 교회를 아주 그리워하고 있다. 현대의 사상적 유형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옛 사상, 가르침 그리고 구조로부터 벗어나 현대성의 도입을 외쳤다. 이러한 영향에 빠져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잡신처럼 그리고 죄를 유감 정도로 생각하며, 교회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성경적 윤리규범을 상대적 윤리규범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현대 실용주의 성공이론에 근거한 기업경영 마케팅 기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빛나간 병든 한국교회를 되살릴 길은 없는가?

모든 한국교회는 개혁신학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강조해야 한다. 성경적 교회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절대적 윤리규범을 재강조 해야 한다. 모든 영적 지도자는 강단에서 강연(addressing)하지 말고 설교(preaching)해야 한다. 신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권자임을 선포해야 한다. 성경만이 진리임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반드시 대항하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이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공동체, 서로가 진실하게 대하고 아껴주는 공동체,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드러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섬기려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배종석, 양혁승, 류지성, 공저.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 성인경.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육성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정성구.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서울: 하늘기획, 2009.
- 황봉환. “복음주의 윤리학의 정체성과 실천적 과제”. 『성경과 신학』. 제47권 (2008): 180-208.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London: Banner of Truth, 1959.
- _____.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6.
- Boice, James Montgomery and Sasse, Benjamin E. *Here We Stand*. 김기찬 역. 『복음주의의 회복과 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 Douma, J. *Responsible Conduct: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개혁주의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Davidson, A. B.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11.
- Forsyth, Peter Taylor. *The Cruciality of the Cross*. London: Independent Press, 1948.
-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e*. 이규현 역. 『성의 역사 I』. 서울: 나남출판사, 2004.
- Geisler, Norman L. and Snuffer, Ryan P. *Love Your Neighbor: Thinking Wisely about Right and Wrong*. 박주성 역.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읽다』. 서울: 사랑플러스, 2009.
- Grenz, Stanley J. & Olson Roger E.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서울: IVP, 1997.
- _____.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흐름과 토대』. 서울: IVP, 2001.
- Hansen, Collin. *Young, Restless, Reformed*. 조현학 역. 『현대 미국개혁주의 부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Heppel, Heinrich. *Reformierte Dogmatik*. 이정석 역. 『개혁과 정통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Hoekema, Anthony. “The Attributes of God: The Communicable Attributes.” in *Basic Christian Doctrines*. edited by Carl F. H. Henry.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1.
- Henry, Carl F. H. *The God Who Show Himself*. Waco, Tex.: World, 1966.
- Horton, Machael S. *Putting Amazing Back into Grace*. 윤석인 역.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4.

Lilley, J. P. *The Principles of Protestantism*. Edinburgh: T & T Clark, 1911.

Lloyd Jones, D. M. *What is an Evangelical?* 이상길 역.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복있는 사람, 2004.

Stone, Darwell, *The Church: its Ministry and Authority*. London: Rivingtons, 1902.

Webber, Robert E.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 역. 『기독교문화관』. 서울: 엠마오, 1984.

_____. 『하나님의 포용』. 차명호 역. 서울: 미션월드, 2007.

Wells, David F.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중』.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_____. *Losing Our Virtue*. 윤석인 역. 『윤리실중』.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_____. *God in the Wasteland*. 윤석인 역. 『거룩하신 하나님』.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7.

_____. *Courage to be Protestant*. 홍병룡 역. 『용기 있는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_____. *Above All Earthly Powers*. 윤석인 역. 『위대하신 그리스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Williams, J. Rodman. *Renewal Theology: God, the World and Redemption*. Grand Rapids, Mich: Academic Books, 1988.

Theological and Ethical Tasks of the Unchristian Phenomenon in the Reformed Church in Korea

Hwang, Bong-Hwan
Dae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what are the unchristian elements in the reformed church in Korea and reemphasize the reformed theology and ethical norms. What kinds of unchristian elements arose in the reformed church in Korea? Now under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meaning 'postmodernity', the Korean society and reformed church are exercising post-authority, post structuralism and post conservatism. Due to the impact of postmodernity, religious pluralism arose in Korean society. Religious pluralism destroys the absoluteness of biblical truth and teaches that in every religion men can be saved from sin and eternal damnation.

By such postmodern thinking the reformed church in Korea is gradually secularized. Then, what is the phenomenon of unchristian elements arose in the reformed church in Korea? First, many reformed churches consider 'God' like the array of the world's 'gods'. By such thinking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is weakened in the reformed theology. Second, the theological concept of sin is also weakened. The modern society considers sin as unlawful behavior and an unrighteous life. Third, in the reformed church, ethical norms disappeared because of modern society's refusal of ethical norms of the Bible and taking relative ethical norms as absolute ones.

Fourth, many churches implement the marketing methods of business to promote church growth. This is taken from George Barna, who teaches that the church needs to use management techniques of business for church growth. Then, what are the reformed theology and ethical norms to reestablish for the reformed church under such influence? First, the reformed church and pastors must emphasize the theological balance between God's divine transcendence and immanence. Second, it needs to reestablish the biblical doctrine of church. If the church is called the spiritual community that God called out of the world,

the church must practice biblical evangelism, worship that the Bible teaches, doctrinal teaching and church discipline for the believers. Third, it needs to reemphasize Christian ethical norms. The ethical norms must be founded on the Bible for the judgment of Christian words and deeds, good and bad behavior, right and wrong and justice and injustice in their lives.

In order to practice these theological tasks and ethical norms the Ten Commandments must be emphasized, Christian love Christ has done for us must be done and social justice must be practiced. It is possible for ethical practices to emphasize that God is holy, God is against sin, evil thoughts and acts, and God's absolute authority of His word must be acknowledged. Recognizing such theological and ethical tasks, all believers in the Korean church must maintain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promoting a loving church community which demonstrates sincerity and faithfulness in their living, while devoting themselves to serve one another.

key Words : Unchristian Factors, Postmodernism, Reformed Church, Ethical Norms, Theological Tasks